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담당 부서	자원순환과	배포일자	2023년 8월 21일(월) 총 3매	
		담 당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순환시설팀장 • 담당자 	최명환 ☎440-3581 이경옥 ☎458-708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 자원환경센터 기술진단 결과, “기준만족”

- 한국환경공단, ‘적정 운영’ 되고 있으나 ‘전면교체 대보수 등’ 필요 제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청라 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기술진단 결과 ‘성능진단, 운영현황, 환경오염 물질 모두 기준만족 및 적정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존 소각시설의 전면 교체 대보수 등’ 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라 자원환경센터는 2002년부터 사용 개시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하루 420톤 규모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 기술진단은 공공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진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현황조사, 성능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수행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기술진단이다.

기술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청라 자원환경센터의 소각시설은 소각시설을 운영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 등이 기준치 이내이고, 연소되

지 않고 남은 미연물은 최대한 완전연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 20년 이상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시설 운영 관리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각시설의 전반적인 기계 설비 노후화 및 내구도 저하에 따라 소각시설의 성능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다.

또한, 장기간 사용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 비용 및 운영 난이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를 포함한 주요 설비의 대부분을 전면 교체 대보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청라 자원환경센터는 사용 연한이 많이 지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천환경공단에서 잘 관리해 성능과 환경 안전성 모두 기준만족 돼 다행스럽다” 며, “기술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동안 최대한 안전하고 적정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관련사진> 청라 자원환경 센터 사진

